



보도시점 2024. 1. 26.(금) 14:00 배포 2024. 1. 26.(금) 11:00

총리 현장행보, 국민불편해소로 이어지다

- 창동역 현장행보(23년8월) 후 게이트 설치 이견 해소 -
- 한덕수 국무총리, 개별 건의 사항도 꼼꼼히 챙겨 -

- 정부가 창동민자역사 공사와 관련하여 코레일(한국철도공사)과 서울교통공사간 이견을 조정함에 따라 '창동역 민자역사 개발사업*'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.
 - * 사업개요('22~'26, 창동역사(주)): 창동역 현대화를 위해 지상 10층, 지하2층 규모의 민자역사 건설(판매시설, 주차장, 문화시설 등)
-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창동역 신규 게이트 설치와 관련하여 게이트 위치, 관리 주체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. (게이트 관리 주체가 운임 수입도 관리함에 따라 양기관 입장차이 발생)
 - * 창동역은 1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역으로, 기존 게이트 2개를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, 민자역사개발로 신규 게이트 추가 설치 예정
-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8월 창동역 현장행보 시, 민간사업자 및 근로자들과의 소통자리에서 관계 기관간 이견으로 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고 국무조정실에 해결을 지시하였다.
 - 이에,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기관*과 수차례 논의 끝에 신규 게이트는 위치는 국민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, 운임 수입은 관리주체 여부와 관계없이, 양 기관간에 균등하게 배분(기존 및 신규게이트)하는 조정안을 지난해 10월 마련하였다.
 - * 국토교통부, 서울시, 코레일, 서울교통공사 등
 -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여 1월 26일(금)에 '창동역 운수수입금 배분협약'을 체결함에 따라 창동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.

-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무총리 현장행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양찬희 (044-200-2239)
		담당자	사무관 김인옥 (044-200-2242)



□ **창동 민자역사 사업개요**

- (사 업 명) 경원선 창동민자역사 신축공사
- (사업기간) '22~'26
- (사 업 자) (시행자) 창동역사(주), (시공사) 롯데건설 (감리사) 한림건축씨엠
- (사업내용) 지상 10층, 지하 2층, 판매시설, 주차장, 문화시설, 운수 시설, 환승센터 등

□ **창동 민자역사 조감도**



* 현재 2층(대합실) 게이트(서교공)를 통과하여 1층 1호선(코레일)과 3층 4호선(서교공) 이용 중이며, 민자역사 건설에 따라 3층에 환승통로 게이트 추가 설치 계획(기존 게이트 존치)